

# 참으로 우리의 임마누엘이신 분

## - 네덜란드 신앙고백서의 기독론

바런트 캄파위스 교수  
(네덜란드 개혁교회 [해방] 목사, 1976년 - ;  
캄펜 신학대학 교의학 교수, 1987-)

한사랑교회  
2015년 4월 11일 (토)

### 1. 서론

“ 방식으로 그분은 참으로 우리의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이 구절은 「네덜란드 신앙고백서」(1561) 18조에서 증거성구들을 전체적으로 나열한 후에 결론으로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앙고백서의 저자이자 네덜란드의 순교자인 귀도 드 브레(Guido de Brès)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십니까? 그가 두 조항(18, 19)에서 상세하게 서술할 정도로 이 주제가 그에게 중요하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조항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하여 이 시간에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네덜란드 신앙고백서에서 그리스도의 위격에 관하여 교훈하는 내용에 집중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우선은 이 신앙고백서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한 교리가 그분의 위격에 대한 교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 2. 제10조, “예수 그리스도는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

---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신성을 떠나 하나님의 독생자로서<sup>1)</sup> 영원 전에 나셨으며, 피조물이 아니므로 그분은 조성( )되거나 창조되지 않으셨고,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고 동일하게 영원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고( 1:3), 모든 점에서 그분과 동등하심을 믿습니다.<sup>2)</sup> 그분은 우리의 본성을 취하셨을 때부터만 아니라 영원부터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sup>3)</sup> 이것은 구약과 신약의 여러 구절들이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바와 같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하고,<sup>4)</sup> 사도 요한은 모든 것이 말씀, 곧 그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에 의하여 지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sup>5)</sup> 또한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하여 만물을 지으셨다고 합니다.<sup>6)</sup>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sup>7)</sup> 따라서 하나님, 말씀,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그분은 만물이 창조될 때에 존재하셨으며 그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분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요 8:58) 하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분은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요 17:5)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섬기는 분이십니다.

1) 마 17:5; 요 1:14,18; 요 3:16; 요 14:1-14; 요 20:17,31; 롬 1:4; 갈 4:4; 히 1:2; 요일 5:5,9,12

2) 요 5:18,23; 요 10:30; 요 14:9; 요 20:28; 롬 9:5; 빌 2:6; 골 1:15; 딤후 2:13; 히 1:3; 계 5:13

3) 요 8:58; 요 17:5; 히 13:8

4) 창 1:1

5) 요 1:1-3

6) 히 1:2

7) 고전 8:6; 골 1:16

신앙고백서는 이미 10조에서 그리스도의 위격에 관하여 중요한 몇 가지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삼위일체에 관한 고백에 뒤이어서 그 결론으로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구절은 옛 니케아 신경(325/381)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리우스가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신성을 부정한 것에 맞서서, 니케아 신경은 그리스도께서 성부와 동일 본질이심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러한 표현을 귀도 드 브레는 제10조에서 차용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니케아 신경은 성자께서 존재하지 않던 시간이 있었다는 아리우스의 주장을 정죄하였습니다. 니케아 신경은 그리스도의 영원하심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제10조에서 차용되었습니다. “ **우리의 본성을 취할 때부터가 아니라 영원부터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취한 몇몇 구절들을 비교하는 복잡한 성구 인용이 이어진 다음에, 결론으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그분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분이시며,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예배하고 섬기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확고한 결론입니다. 그리스도는 참되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신성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분이심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한분이신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이 아니십니다.

이렇게 강력한 결론을 저자는 매우 즉각적으로 도출하고 있습니다. 10조는 이단과의 논쟁도 담고 있지 않으며, 성구 인용도 많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이 조항과 나중의 18, 19조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고백은 로마가톨릭과 루터파, 개혁신교 간에 문제가 된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재세례파와 별인 기독교론에 관한 논쟁도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논쟁의 대상은 아리우스(Arius)뿐입니다. 그러니까 드 브레는 무려 12세기 이상 떨어진 시대의 대적과 상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오늘날 우리는 또 다른 상황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특히 지난 두 세기 동안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육신한 신에 대한 신화』(*The Myth of God Incarnate*)라는 제목을 달고 나온 책도 있었습니다! 16세기에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던 것이 지금은 논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10조와 같이 강력한 결론도 이제는 더 많은 논증을 제시하여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제10조는 네덜란드 신앙고백서가 보편적 신앙고백이 되기를 원한다는 점을 아름답게 보여 주는 예이기도 합니다. 10조의 내용은, 모든 세대의 기독교회가 고백하여 온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간구할 대상이시다’ 하는 신조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 3. 제17조, “타락한 인간의 구원에 관하여”

---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와 같이 육신의 죽음과 영적인 죽음에 떨어지게 된 것을 보시고, 두려움 가운데 그분에게서 도망하던 인간을 그분의 놀라운 지혜와 선하심으로 찾기 시작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드님을 주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심으로써( 4:4)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창 3:15) 인간을 복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

10조 외에, 17조도 18-19조의 내용을 위한 전제가 됩니다. 놀랍도록 아름다운 이 조항에서부터, 네덜란드 신앙고백서는 기독교론을 특별히 다루기 시작합니다. 이 조항에는 또한 드 브레가 내용을 매만진 원래의 흔적이 담겨 있는데, 여러분이 네덜란드 신앙고백서를 존 칼빈의 프랑스 신앙고백서(1559)와 비교해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프랑스 신앙고백서 제13조는 네덜란드 신앙고백서 제17조와 상응하는데, 거기에는 이 짧은 조항에서 두 가지 핵심적인 특징이 빠져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강조입니다. “우리는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두려움 가운데 그분에게서 도망하던 인간을 그분의 놀라운 지혜와 선하심으로 찾기 시작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드님을 주셔서……약속으로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이렇게 이 구절은 감동적인 방식으로 기독교론을 시작함으로써, 네덜란드 신앙고백서의 기독교론 전체에 따스한 빛을 던져 줍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이야기하여야 한다!’ 하고 말하는 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러한 고백의 빛 아래에서 그 다음의 논의를 전개합니다. 네덜란드 신앙고백서는 합리적인 설명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정의할 수 있다 하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놀라움과 감사를 드러냅니다. 제 생각에는 이러한 표현 방식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방식보다 훨씬 더 설득력을 줍니다. 요리문답에서는 제5-6주일에서 구원론을 시작할 때에, 중세 신학자인 캔터베리의 안셀름의 논증을 따라가면서 성육신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디모데전서 3:16에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하면서 말하듯이, 성육신이 신비라는 점은 네덜란드 신앙고백서에서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네덜란드 신학자인 폴만(Polman)은 네덜란드 신앙고백서 제16조와 17조 사이에 아무런 모순이 없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정확한 말입니다. 16조는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관한 것이고, 17조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활히 여기시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마치 따뜻한 교리와 차가운 교리가 서로 맞서고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분명한 점은, 17조의 내용이 16조의 요소들 중에서 하나만을 다룬다는 것입니다. 그 요소는 택하심과 자비하심입니다. 16조의 또 다른 요소인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죄와 멸망 가운데 그대로 두신다는 것으로, 선택의 교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기독교론에 포함됩니다. 제20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공의를 ‘그리스도’께 나타내 보이심을 말합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형벌을 담당하셨습니다. 이것이 17조에서 미리 밝히는 내용입니다.

프랑스 신앙고백서와 비교해 볼 때에 네덜란드 신앙고백서 17조에만 있는 또 다른 요소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언급입니다. 이 언급에서 의도하는 것은 창세기 3:15의 원시 약속입니다. 물론 이것은 드 브레가 처음 생각해 낸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앞서 여러 교부들과 신학자들이 이 약속의 중요성에 관하여 이야기 하였습니다. 하지만 드 브레가 이것을 언급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18조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말할 때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자기의 독생하신 영원한 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심으로써 그 약속을 이루셨다.” 제18조에서 재세례파와 별이는 논쟁 중 하나는 구약과 신약의 관계, 약속과 성취의 관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드 브레가 보기에, 이 두 가지는 서로 긴밀하게 속하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론은 그저 신약에 와서야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낙원에서부터, 타락 직후에 기독교론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연속성이 있는데, 재세례파는 그것을 깨뜨렸습니다.

네덜란드 신앙고백서의 주해를 쓴 네덜란드 신학자 코우프만스(Koopmans)은, 구약 성경에 대하여서 유대적 및 역사비평학적 관점과 기독교적 관점 간에 차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전자의 두 관점은 그리스도를 구약과 관계하여서 인식하기는 하지만 반대로 구약을 그리스도와 관계하여서 인식하지는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구약 전체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으로 구약을 읽습니다( 5:39).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모든 약속은 예와 아멘이 됩니다(참조 고후 1:20). 따라서 처음 죄악 이후의 첫 약속이 이미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신앙고백서는 구약의 기독교론적 독해를 장려합니다.

#### 4. 제18조, “하나님의 아드님의 성육신에 관하여”

18조는 하나님의 아드님의 성육신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조항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참된 인간의 본성을 그 모든 약함과 함께 취하셨지만 죄는 없으시다는 고백입니다. 이 조항의 ‘논의’는 명시적으로 재세례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의 ‘결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면에서 이제부터 다루겠습니다.

#### 4.1. 핵심

---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sup>1)</sup> 그분이 정하신 때에<sup>2)</sup> 자기의 독생하신 영원한 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심으로써 그 약속을 이루셨다고 고백합니다. 그 아들은 종의 형체를 취하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2:7). 그분은 모든 연약함을 지닌 참된 인성을 실제로 취하셨으나<sup>3)</sup> 죄는 없으십니다.<sup>4)</sup> 왜냐하면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성신의 능력으로 복된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서 수태되셨기 때문입니다.<sup>5)</sup> 그분은 참인간이 되시기 위하여 육체만이 아니라 참된 인간 영혼에서도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인성을 취하셨을 뿐 아니라 참된 인간 영혼도 취하셨습니다. 원본] 인간은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도 타락하였기 때문에, 두 가지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은 두 가지를 모두 취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1) 창 26:4; 삼하 7:12-16; 시 132:11; 눅 1:55; 행 13:23.  
 3) 딤후 2:5; 딤후 3:16; 히 2:14  
 5) 마 1:18; 눅 1:35

2) 갈 4:4  
 4) 고후 5:21; 히 7:26; 뱀전 2:22

---

먼저 이 조항의 ‘핵심’, 곧 그리스도께서 실제 인성을 취하신 것에 대하여 살펴봅시다. 여기에서 전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자신의, 독생하신, 영원하신 아드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10조의 고백을 반복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조항에서는 강조점이 그리스도의 인성의 실제(reality)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조항은 빌립보서 2장의 구절에서 그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다는 부분은 언급하지 않고 단지 그가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부분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성신의 능력으로 복된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서 수태되셨기 때문”에 실제로 인성을 취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드 브레는 자신의 책 『믿음의 지팡이』 (*The Stick of the Faith*)에서 마리아 숭배를 명시적으로 반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마리아를 ‘복된 동정녀’라고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경의 표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불렀습니다( 1:28).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여자 중에 복 받은 자’라고 부르는데, 그 말은 곧 ‘가장 복 받은 여인’이라는 뜻입니다(눅 1:42). 마리아 자신은 찬송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눅 1:48). 정통 개신교회 안에서 동정녀 탄생에 관한 고백은 유지되고 있지만, 복된 마리아에 관하여는 대부분 간과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숭배에 대한 저항이 워낙 크기 때문에 마리아에 관하여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에 대하여 호소하면서도 정작 성경을 거슬러 행하는 것이 됩니다. 드 브레가 18조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는 마리아를 복되다고 부르는 모든 세대 가운데 자신이 속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에게 이것은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이 점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실제적인 인성이 지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드 브레는 두 가지 면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을 그 모든 연약함과 함께 취하셨습니다. 둘째, 이러한 인성에는 몸과 영혼이 모두 포함됩니다.

여기서 ‘연약함’에 관하여 보자면, 앞서 제가 언급했던 코우프만스이라는 사람은 네덜란드 신앙고백서가

‘연약함’에 관하여 충분히 다루지 않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성경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하는 데( 1:14), 코우프만스는 여기서 ‘육신’이라는 말에 심판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죄 지은 인간, 죽어야 할 운명에 처한 인간의 상태를 묘사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의 인간 존재가 되셨습니다. 코우프만스는 개혁 신앙의 기독교인이 이 점을 다소 간에 망각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즉 성경적인 ‘육신’의 개념이 그 예리함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의 주장은 이러한 면에서 칼 바르트의 주장과 연결이 됩니다.

그렇지만 네덜란드 신앙고백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담당하셨다는 신앙을 매우 진지하게 고백합니다(20항).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성이 지닌 연약함에는 죽음도 들어 있었습니다(19조). 하지만 실로 네덜란드 고백서는 이 점에서 칼 바르트보다 더 신중합니다. 바르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인들 중에 가장 큰 죄인이 되셨다고 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신앙고백서가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고 신중하였던 것을 칭송할 만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고 말하고(고후 5:21), 또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고도 말할 뿐 아니라(갈 3:13), 그리스도를 마리아에게서 낳 ‘거룩한 아들’이라고도 말하고(눅 1:35) 죄를 알지 못하셨다고 말합니다(고후 5:21). 이 거룩함은 그분의 신성의 영광만이 아니라 인성에도 미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 앞서 행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항상 두 가지 표현을 함께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나 유죄가 되신’(innocent guilty) 분입니다. 자신의 악이라는 면에서는 무죄이시지만, 우리로 인하여서 유죄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 면, 곧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과 영혼을 취하셨다는 것에 관하여서는, 네덜란드 신앙고백서는 독특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원본에서 드 브레는 하나님의 아드님이 ‘인성을 취하셨을 뿐 아니라 참된 인간 영혼도 취하셨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마치 인성에는 몸만 포함된다는 인상을 줍니다. 그것은 원 저자의 의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1618-1619년의 도르트 대회에서는 표현을 수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의 본문은 “ **아니라 참된 인간 영혼에서도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논법은 교부들이 아폴리나리스를 대항하여 펼쳤던 논증을 따르고 있습니다. 아폴리나리스는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영혼을 취하셨음을

부정하였습니다. 18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간의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도 타락하였기 때문에 두 가지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은 두 가지를 모두 취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는 주후 4세기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취하여지지 않은 것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인과 구원론이 서로 연결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의 위격과 사역은 서로 나눌 수 없습니다.

## 4.2. 논의

---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어머니에게서 육신을 얻으신 것을 부인하는 재세례파의 이단에 반대하여, 그리스도께서 자녀의 몸과 피에 참여하셨다고 고백합니다(2:14). 그분은 다윗의 허리에서 나온 자손이시고(행 2:30), 육신을 따리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롬 1:3), 동정녀 마리아의 태의 열매이시고(눅 1:42), 여자에게서 나셨고(갈 4:4), 다윗의 가지이시고( 33:15),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가지이시고( 11:1), 유다 지파에서 나셨고(히 7:14), 육신을 따리시는 유대인에게서 나셨고(롬 9:5),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붙들어 주려고 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씨로 오셨습니다.<sup>6)</sup> 그러므로 그는 모든 일에 그의 형제들과 같이

---

조항의 논의는 “ 그의 어머니에게서 육신을 취하신 것을 부인하는 재세례파의 이단에 반대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면서 구약과 신약 성경의 수많은 성구들을 가지고서 재세례파의 오류를 드러냅니다. 논증의 주된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유다의 후손이고, 유대인의 혈통이며, 이새와 다윗과 마리아의 후손입니다.’ 이러한 주요 논지는 히브리서를 두 군데 인용함으로써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14은 그리스도께서 그 자녀의 혈육에 참여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17과 4:15의 조항은 그분이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셨고 다만 죄는 없으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드 브레가 ‘복된 동정녀 마리아’를 말하는 이유가 된 신학적 추론입니다. 마리아는 실제로 주님의 어머니이십니다.

재세례파 신학의 아버지라 할 만한 사람은 네덜란드인인 메노 시몬스(Menno Simons)입니다. 그 사람의 등장 이후로 오늘날까지도 재세례파를 종종 ‘메노나이트’(Mennonites)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그는 전통적인 성육신 교리가 적그리스도적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인류와 연결짓는 사람은, 그분을 아담과 연결시킴으로써 아담의 죄와 연결 짓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인간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에게서 난 육신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려는 사람, 곧 아브라함과 다윗의 생물학적 자손으로 여기려는 사람은, 그들 모두가 아담의 불순하고 죄악 된 씨앗에서 나온 자들이므로, 아담의 불의와 저주와 죄에 대하여서도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에 따르면)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은 마리아의 몸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몸 ‘안에’ 마치 지상의 땅에 천상의 열매가 맺히듯 생겨난 것입니다. 메노의 주장에서는 요한복음 1:14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는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읽어서 ‘말씀이 육신으로 변화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마리아에게서 인간의 본성을 취하실 여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요한복음 1:14을 이러한 방식으로 문자적으로 취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본문들을 문자적으로 취할 수 없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구주에 대한 약속만 주어진 것이고, 이 약속은 이제 성취되었습니다. 따라서 메노 시몬스에 따르면, 예수님은 약속에 따라 태어났으므로 그들의 자손이라 불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노파의 성육신에 관한 관점은 당대에 재세례파들 사이에 흔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옛 신조들을 거부할 여지를 만들어 주는 ‘전통에 대한 저항’, 본문을 고립시켜 대하게 만드는 ‘성경주의’, 타락한 인간 본성을 악과 동일시하게 만드는 ‘이원론’ 등이 함께 이루어 낸 합작품이었습니다. 개혁 신학자들과 재세례파들 간에 많은 대화가 이루어졌지만, 이 점에서 거의 성과가 없었습니다. 드 브레는 재세례파와 관련하여서 『재세례파의 뿌리와 기원과 토대』 (*The Root, Origin and Foundation of the Anabaptists*)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거의 절반이 이에 관한 논의였습니다. 드 브레에게는 이 사안이 유아세례에 관한 논의만큼이나 중요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매우 강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와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그분의 아들을 보내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습니다. 약속에 대한 강조는 18조에서도 보게 됩니다. 그 전제가 되는 것은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입니다. 이 통일성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원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구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창조세계와 창조하신 인류를 구원하시되, 그의 아들을 이 인류에 참여하게 하심으로써 그 일을 이루십니다.

#### 4.3. 결론

---

방식으로 그분은 참으로 우리의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23).

---

이미 결론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참으로 우리의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십니다. 여기서 두 가지 요소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참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경배할 분이십니다(10 ).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그분은 실제로 ‘우리과 함  
께하시’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의 인간 본성, 우리가 받는 유혹들, 우리의 죽을 운명이 그분께  
는 낯선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에 그분은 완전히 참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에게 참으로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바깥이나 우리 위에서 단지 우리의 세상에 개입하  
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 중 하나가 되심  
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다시금 그리스도의 위격과 사역 간의 연결이 매우 긴밀하게 드러납니다. 20-21조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임마누엘로서 ‘행하시는’ 일을 논의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의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  
의 임마누엘이 ‘되십니다.’ 기독교는 위격과 본성에 관한 전문적인 논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의 현실에 참여하셔서 죽음에 내어 준 바 되시고, 그럼으로써 우리로 그분의 신성과 영생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드신 그 신비에 대한 신앙고백입니다.

## 5. 제19조, “그리스도의 한 위격 안에 있는 두 본성에 관하여”

성육신의 신비가 그리스도의 위격에 관한 우리의 신앙고백에 끼친 영향은 무엇입니까? 제19조의 주체  
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금 저는 핵심과 논의와 결론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의 ‘핵심’  
은 칼케돈에서 있었던 네 번째 에큐메니칼 회합에서 이루어진 합의 내용으로서, 그리스도께서 한 위격이시  
고 두 본성이시며 이 두 본성은 혼합되거나 변하거나 분할되거나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논의’는 이  
경우에는 명시되지 않고 다만 함축되어 있는데, 루터파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죽음을 당하심으로써,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정복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 5.1. 핵심

---

우리는 이 잉태에 의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위격이 사람의 본성과 나눌 수 없게  
연합되고 결합되었으며,<sup>1)</sup>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두 분이시거나 혹은 두 위격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한 분의 단일한 위격 안에 두 본성이 연합되었다고 믿습니다.[두 본성이 한  
위격을 이루었습니다. 원본]. 그러나 각 본성은 그 구별되는 속성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분의 신성은 항상 창조된 것이 아닌 자존(存)의 상태로 있으며,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며(히 7:3), 하늘과 땅을 채우고 있습니다.<sup>2)</sup> 또한 그분의 인성도 그 속성들을 잃지  
않아서, 시작된 날이 있고 피조(被造)의 상태로 있습니다. 이러한 그분의 인성은 유한하며  
실제 육신의 특성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sup>3)</sup> 심지어 부활로써 자신의 인성에 불멸성을  
부여하셨을 때에도 그분의 인성이 진정한 인성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sup>4)</sup>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과 부활은 또한 그분의 몸의 실제성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sup>5)</sup>

그러나 이 두 본성은 한 위격 안에 매우 긴밀하게 연합되어 있어서 그의 죽음에  
의해서도 나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돌아가실 때에 그분이 자기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신  
것은 자기 육체를 떠난 실제 인간의 영혼이었습니다.<sup>6)</sup> 그 후에도 그분의 신성은 항상  
그분의 인성과 연합되어 있었으며, 심지어 그분이 무덤에 누워 계실 때에도

---

---

7) 비록 어렸을 때에는 그분의 신성이 얼마 동안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때에도 신성이 그 안에 계시지 않은 때가 없었던 것처럼, 신성은 항상 그분 안에 임재하고 있었습니다.

1) 1:14; 요 10:30; 롬 9:5; 빌 2:6-7  
3) 딤후 2:5  
5) 고전 15:21  
7) 롬 1:4

2) 마 28:20  
4) 마 26:12; 눅 24:39; 요 20:25; 행 1:3, 11; 행 3:21; 히 2:9  
6) 마 27:50

---

‘핵심’에 대하여 살펴봅시다. 19조에서는 명시적으로 칼케돈 신조를 인용하지는 않지만, 한 위격과 두 본성에 대한 용어들을 보면 이 신조를 배경에 두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칼케돈의 정의를 문자적으로 인용하는 것은, 각 본성이 그 본성만의 독특한 특성들을 유지함을 말하는 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인용한 다음에 먼저 그리스도의 본성들이 ‘혼합되지도, 변하지도 않음’을 상술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성(Divine nature)은 신적 속성들(Divine properties)에 참여하고 있으며, 창조된 것이 아니고 영원하며 하늘과 땅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분의 인성은 참된 몸의 속성들을 모두 지니고 있으며 창조되었고 시작된 날이 있고 유한합니다. 심지어 부활을 통하여서도 인성의 실체는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은, 우리의 부활도 그분의 육신이 실제라는 사실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위격과 사역의 관계를 보게 됩니다. 신학적이고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모두 실제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분할되지도 분리되지도 않는’ 관계에 대한 고백이 상술되고 있습니다. 두 본성이 모두 한 위격 안에 연합되어 있으므로, 심지어 죽음과 무덤으로도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이셨을 때에도 신성은 그분 안에 여전히 있었습니다.

여기서 다시금 신앙고백서의 옛 프랑스어 및 네덜란드어 판본에 나타나는 구절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판본들을 보면 두 본성이 한 위격 ‘안에서’ 연합되어 있다고 말하지 않고, 한 위격을 ‘이루고 있다’(make one person)고 말합니다. 도르트 대회에서는 이 표현을 좀 더 통상적인 표현인 ‘한 위격 안에서’라는 말로 바꾸었습니다.

지난 세기의 30년대에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비위격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심각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성육신 하신 말씀인 한 위격은 성자의 영원한 신적 위격이지만, 그분의 인성은 상응하는 ‘위격’이 없으며, 따라서 이러한 인성은 ‘비위격적인’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캄펀 신학교 선배 중 한 분인 클라스 스킬더(Klaas Schilder) 박사는 이러한 추론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 본성의 연합이 지니는 역사성을 고려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위격에 관하여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증거로서 그는 네덜란드 신앙고백서의 가장 오래된 본문을 인용합니다. 거기서 ‘위격’은 두 본성으로 ‘이루어진’, 나뉘지 않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위격’은 오직 신적인 위격만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드 브레의 원래 표현은 칼빈이 『기독교 강요』 제2권 14장의 소제목으로 붙인 굉장한 표현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중보자의 두 본성이 어떻게 한 위격을 이루는가(make one person).’ 아마도 드 브레가 이 제목에서 자신의 표현을 가져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앞서 언급한 코우프만스 박사는 칼빈에게서 나타나는 옛 교의와 관련하여 논문을 썼습니다. 그는 칼빈의 기독교론의 핵심이 ‘하나님-인간이신 임마누엘의 형상’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주장을 위해서 그는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을 인용합니다. “두 본성에 관하여 말하는 그 (성경)구절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참된 본질에 관하여 가장 선명하게 보여 주는 것들이다.” 칼빈에게 중보자의 위격이란 하나님의 성육신하신 아드님의 위격입니다. (따라서 단



신성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드 브레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점에서 도르트 대회가 원문을 유지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5.2. 논의

19조의 배경에는 루터파와의 논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세례파의 경우와는 달리, 루터파에 관하여서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그 점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루터파의 견해가 여기서 논의하여야 할 이단적 교리는 아니고, 다만 칼케돈에서 일탈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루터파는 속성의 교류에 대하여 고백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인성이 신성의 위엄있는 속성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루터파의 가장 권위 있는 신조인 「협화신조」(Formula Concordiae)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으로서만이 아니라 사람으로서도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며 창조세계의 모든 곳에 존재하신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것은 ‘편재설’(Ubiquity)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인성으로서도 모든 곳에 존재하신다는 교리로서, 그 결과 성찬의 떡과 포도주 ‘안에, 함께, 그 아래에’ 그분의 피와 살이 존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덜란드 신앙고백서 19조는 “ **땅을 채우고 있습니다**” 하는 표현을 신성에만 명시적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그분의 인성에 대하여서는 유한한 것으로 고백합니다. 따라서 루터파의 고백과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개혁 신앙의 교리도 속성의 교류에 대하여 이야기하지만, 오직 두 본성의 모든 속성들이 한 위격의 속성이라는 의미에서만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은 개혁 신앙의 관점에서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데, 왜냐하면 인성으로는 마리아에게서 나신 그 위격은 동시에 참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혁 신앙의 교리는 두 본성간의 속성의 교류를 부정합니다.

여기서 네덜란드 신앙고백서의 신중함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루터파에 대하여서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소위 ‘칼빈주의를 초월한’(extra calvinisticum)이라는 개념에 대하여서도 명시하지 않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48문답에서는 그리스도의 신성이 인성을 ‘초월한다’고 말합니다. 드 브레가 이 논쟁을 전면에서 내세우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또한 분명한 사실은, 그가 개혁 신앙의 교리와 칼케돈의 고백 즉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혼합되지 않고 변하지도 않는다’는 고백을 견지하기 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인성에서 아무것도 떼어내지 말아야 합니다.

## 5.3. 결론

---

우리는 그분이 참하나님이시며 참사람이심을 고백합니다. 즉 그분은 참하나님으로서 그분의 권능으로 사망을 정복하셨으며, 참사람으로서 자기 육신의 연약함을 따라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분이시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

19조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참하나님이며 참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즉 그분은 참하나님으로서 그분의 권능으로 사망을 정복하셨으며, 참사람으로서 자기 육신의 연약함을 따라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분이시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구원의 교리와 연관성, 그리스도의 사역과의 연관성을 보게 됩니다. 네덜란드 신앙고백서는 무한한 것과 유한한 것의 관계에 관한 철학적인 논의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변치 않는 인성에 관한 고백은, 그의 신성에 관한 고백이 그러하듯이 구원에 관한 고백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망을 정복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주께서는 이처럼 권세가 있으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 일을, 연약한 인간으로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게 것처럼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입니다.

## 6. 요약 및 결론

네덜란드 신앙고백서 제18조와 19조의 기독교인이 시대와 장소의 산물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제18조는 16세기 재세례파와의 논쟁을 고려하지 않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특히 네덜란드에서는 이 논쟁이 중요하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네덜란드 신앙고백서가 이 주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제19조는 다소 다릅니다. 이 조항은 루터파와의 논쟁의 산물이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의 강조점(그리스도의 인성은 심지어 그분의 부활로 인하여서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도 루터파와의 논쟁을 고려하지 않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 논쟁의 결과 ‘참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매우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네덜란드 신앙고백서는 교회의 가장 오래된 역사로부터 이러한 요소를 받아들였습니다. 가현설과의 투쟁은 기독교론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첫 번째 논쟁입니다. 가현설은 영지주의 이원론의 결과였고, 성육신 교리를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가현설은 예수께서 단지 사람으로 ‘보이셨을’ 뿐이라는 교리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미 사도 요한이 이 개념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그것을 읽을 수 있고 요한의 서신들에서는 훨씬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재세례파의 성육신 교리에 관한 논의에는 그와 매우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는 일종의 이원론이 존재합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에게 낯선 것이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현실에 동참하지 않는 분이 됩니다. 루터파와의 논의는 그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루터파의 ‘편재성’(ubiquity) 교리에서 그리스도는 더 이상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이 되신 분이 아니게 됩니다. 이러한 교리에 맞서서 네덜란드 신앙고백서는 그리스도께서 인성에서 온전하심을 고백합니다.

후대에 와서는 정통 기독교론의 초점이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고백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참으로 우리 시대에는 네덜란드 신앙고백서가 했던 것보다 더욱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신앙고백서는 지금도 ‘육신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신비를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유산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최근 수 세기 동안에 정통 기독교론은 때때로 가현설의 흔적을 띠기도 하였습니다. 개혁교회의 기독교론에서도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하여서보다 그분의 신성에 대하여서 더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현설은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낯선 분이 되어 버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네덜란드 신앙고백서의 기독교론이 적실한 점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매우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기독교론의 아름다움은 그분의 위격과 사역을 매우 가까이 함께 두는 데에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 곧 하나님 이시고 사람이시며, 높이 되신 분이시자 우리 가까이 계시는 그분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참으로 우리의 임마누엘”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 전부입니다.